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4호 [주제 제 25397호] 주제 105(2016)년 9월 10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꽂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창전
68돐을 맞으며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전정하였다.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을 개척하
시고 사회주의 위업 완성의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천세의 애국자
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
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
없는 그리움과 흠토의 정이 만수대
언덕으로 뜨겁게 굽이쳤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꽂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앞에 놓여
있었다.

당, 무역, 청전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
로 꽂바구니들이 전정되었다.

당, 무역, 청전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
로 꽂바구니들이 전정되었다.



부의 명의로 꽂바구니가 전정
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대기에는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개신다》 등의 글밥이 죄여져있

거창한 혁명실천, 열화와 같은
군중들은 비범한 사상의 본과
에 국현신으로 만만년민족사에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멀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를 보내시였다.

당의 인민중심,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실상에
새겨안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 평상제2의 학부
외과학총장과 교원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뜨거운 인간
애와 지역한 정성으로 심한 화상을 입고 사상에 처하였
던 명천지구한평원합기업소 석성련원의 탄부들을 기적
적으로 소생시켜 다시 혁명초소에 세워주는 훌륭한 소
행을 달휘하였다.

통로지도국 산하단위로 동자 김은순은 만리마의 기
상, 자력사랑의 창조정신이 뉘어지는 려명거리를 건설장에
서 야간지원동작대 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물질방면의
지원원을 이기지 않았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온 날포시 와우도구역 인민보안서로 동자 업적봉은
로 통당시대의 선정거리를 일찌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위험을 창조하고 있는 전설자들을 뜻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당이 절친 중대한 설계도를 최단기간에 현실로 꽂파
을 의지로 암고 떨쳐나선 둘격대원들의 두peg에 고무되
어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리상혁도 전설자들의 생활에
드거운 정을 기울였다.

평성시상업판리소 로동자 훈훈영은 청천강-평남관개

자연호흡식물길건설장에서 어려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

서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둘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었다.

진설의 대변영기가 절치지는 시대의 빅한 승급에 실

정의 박통을 맞추며 항봉시 회상구역 과학기술위원회 새

기술보급소 보급원 한금환은 고산과수종합농장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둘격대원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많은 후방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한 감격

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향일혁명렬사 장율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 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에
맞아 전국향일혁명렬사 장율화동지의 가족이 8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대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전강을 삼아 축원합니다》라는 글밥이 죄여져있

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군대의 책임일군들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을 맞으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금수산태양
궁전을 찾아 9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동지, 활명서동지, 박봉주동

지, 최종애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평

양시인의 당중앙지도기관원들, 최

고인민회의 대외원장, 당, 무역, 청전

기관, 군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이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편성에 조선

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고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편성에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무위원회의 공통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정되었다.

찾아당과 국가,
충고한 경의 표시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통명의로
된 꽂바구니가 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대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밥이
높이 보이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화황한 전로따라 사회주의강

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참가자들은 혁명불멸의 주체사상

을 창시하고 비범한 사상의 품

활동과 청백적인 영도로 불به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우지으며

대양민족이 무궁번영 할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편

성을 우리 끝에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였다.

참가자들은 혁명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걸친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로 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원하게끔

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혁

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세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
하였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사회주

의 국가를 건설하시었으며 나라를 사

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

업수행에 불멸의 열적을 쟁이울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손님들

과 해외동포들이 세계에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천지지도와

외국동포의 길에서 희용하신 승용차

와 전동차, 배, 멀티보존실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리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
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이번 핵탄두 폭발시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
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
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
될 것이다.

주제 105 (2016)년 9월 9일

평양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부강조국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더없이 성스러운 그 이름
불러볼 때면 누구나 공화국의
창건자, 영도자이신 김제원위인을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
슴부풀어오른다.

충연한 마음을 암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인민들의
불길에 휘싸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
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김일성同志와 김정일同志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
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
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
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뜻깊은 공화국 창건 68돐
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뵙고 싶어하는 우리 천민군민의
그리움이 그토록 절절하여
서인가 대천수령 친만히 빛나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의 들
대문은 빛과 열려 있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마루에
안아주시며 해빛 같이 한한
미소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

불멸의 성모상은 우리를 수
록 공화국의 존엄을 온전히
수령님과 함께 주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저절로
솟구쳐올랐다.

제마다 맞이하는 공화국 창
건 기념일이 전만 이례의 명절
은 사람들의 가슴을 류다른 추억
과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설레이
게 한다.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치닫는
절제인들의 환하신 미소가 우리
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유난히 빛나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의 끝에
마치 성지의 끝물마다에 파사
로이 넘치고 있었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종니나루와 금축배나루, 금축배나
루, 느느나루와 천나루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나루들과 파릇파릇한 전등이
시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휘몰아온 광활한
광원에는 다罕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로 차넘쳤다.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을 둘러
보며 우리 조국의 배승의 전통을
따라보니 수령님과 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저는 때로 산총대를
더 속 역세계를 들어취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밟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선군
의 총대를 배승의 보길로 역세계
를 둘러잡으시고 수령님께서 유신으로
남기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죽음과 함께 빛을 잃었지만
우리 조국은 더욱 빛을 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불러오는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심히 대 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쟁취하신 선군혁명령도적을
들이켜보면 강도 일제의 흥亡밀에
진행하여 우리 대원수별을 용위
하여 서 있는 대원수별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찾았습니다.

이 아니라, 이 나라의 평범한 로동
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마음
껏 배움의 나래를 펴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사랑을 영원히 심장에
간직하고 열심히 배워간다
고 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비준통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땅에 밭을 놓고
눈은 세계를 보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
장에 새기고 우리들은 과학
의 최첨단을 펼쳐야 하는 땅
에 기어이 사회주의 문명장
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푸
성에서 청춘을 끌고나온다.』

태양의 성지에서 뜻깊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보내
며 심장으로 터지는 참관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언제나 태양의 빛은 축복을
보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의 차이로 차이를 염두에 두고
행복과 희망을 전합니다.

주체의 최고성지가 찾아온
사람들의 가슴마다 넘쳐나는
것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빛과
우리 공화국을 영광스
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길이 빛나게 주체 혁
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루

해갈 철석의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이 세상
까지 가고자하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결같이 터지는 신념의 목
소리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고 계시면서 영광스러
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만이 있을 것이다.

글 본사기자 전 광남
사진 본사기자 리 둥규

《조선 핵탄두폭발시험에서 성공》,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위력 최종확인》, 《핵무력
의 질량적 강화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일제히 보도

【평양 9월 9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기 연구소에 따라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공으로 알리었다.

조선인민군 관광 김학영은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한 보도문을 발표하여 핵탄두의 일관성이 확증되었다.

성명은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공으로 알리고 핵무기 연구소는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공으로 알리고 핵무기 기관화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의 프레스TV 방송은 조선

핵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주체의 내 조국 영원토록 부강번영 하리

각지에서 공화국 창건 68돐을 뜻깊게 경축

온 나라 천만군민은 조선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총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적동적인 시기에 맞이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을 카드와 환희와 격정을 안고 경축하였다.

공화국이 창건된 뜻깊은 기념일에 핵탄두발사실험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저성능인 소속에 걸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조선의 무진각한 국력을 또다시 만방에 파시한 끝없는 기쁨에 넋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의 혼난한 조행길을 베풀어주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달보하는 든든한 대로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경광을 축하합니다.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국형사에 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의 도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대 앙금전광장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끊없이 급이쳐흘렀다.

경애한 마을안하고 숨엄하게 꾸며진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혁명의 대성인 이시며 백두산 국립공원에 청년증에 솔선결대에 걸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조선의 무진각한 국력을 또다시 만방에 파시한 끝없는 기쁨에 넋놓았다.

그들은 정에 하늘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생의 유신인 우리

공화국이 불체의 강국으로 위용

펼치고 있으며 주체조선은 단체

반미내경에서 최후승리를 이

룩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과 대양상을 찾

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애국의 노래와 땀을 바치며 흐린속에서 만년언약을 일마세운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감동깊게 형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평양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어 떠밀을 경회장을 장식하였다.

수도의 보란봉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경축 국립교향악단음악회《조국찬가》가 진행되었다.

출연자들은 백두산절세워인들의

의 헌현한 영도아래 인민의 락

원이 펼쳐진 사회주의조국의 모

습과 밝은 미래를 원한 애국가《내

나라의 주름 하늘》,《성산여

봉년이 왔네》등의 북곡들을 통

해 잘 보여주었다.

평양 대구광장에서 음악무용

이야기《청춘의 자서전》공연이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담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

주신 전투적과업관철에 떤적나

수령님 나래》,《장군님은

을 어루만져주었다.

위대한 수호자》,《희망님원나

의 조국아》,《신군님의리》등의 노래들이 울려보졌다.

주체조선을 세상에서 가장 우

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물파의 강국으로 일파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

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

제7차대회 결정

을 암울이 말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

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가고 있는

시기에게 세울 것을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보의 정을 암

울이 말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운을 넘나들며 힘차게 행쳐나

갔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평양의 진군과 높이 속도경

의 불파람으로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건설위수행에서

무비의 위훈과 용맹을 펼친 천세

대 청년들의 전통을 이어 오늘의

만래마시대를 백두산영웅

도전을 과감히 물려치고 자주와

청년신화의 자랑찬 폐지들로

수놓아갈 참가자들의 꿈없는

청년 학생들의 경축무도회

각지에서 전 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경

조국이 영원히 강성번영할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주체조선

의 영원한 해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보의 정을 암

울이 말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운을 넘나들며 힘차게 행쳐나

갔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자부심이 한껏 어려웠다.

어깨춤 들판에 박수장단 처가며

흥에 춤거락을 점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물들어온 풍랑과

달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

자주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무궁하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높이 솟아 자기 발전의 최진실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세에 치달하고 내국들에 충족해 수난에 한 걸을 걸어야 했던 식민지 악소국의 인민이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창장 68년의 긍지들은 역사로 이어졌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 중심에서 서서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퍼시하고 있는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전보인류는 남한조선민족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우고자 지구, 지구, 지구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진시켜 주주 위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에 둘어안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드디어 깊이 달려들었다.

『평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수난했던 조선반도의 지질학적 특성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었으며 사회주의 우러나 공화국은 자기 운명의 주인, 지역과 세계평생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승리의 힘으로 이기고자 세계평정사에 자주독립국가의 본보기 마련하였다.

자주독립국가, 단 어석 글자이다. 하지만 이 부문에는 국가의 존엄과 국권,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져 있다. 인류사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노예화하는 세습을 빼앗으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의 침략과 전쟁이 이지럽게 기록되어 있다. 더 많은 나라들이 강점하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창설으로 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침략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험난하게 향했다.

19세기 ~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강들의 식민지 창설의 결과 아시

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이 제국주의 페르망에 의하여 식민지로 분할되었다.

우리 나라 역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민족의 말과 글, 조선 사람으로서의 성과 이름마저 보존할 수 없었던 수년의 역사로 간직하였다. 조선은 그야말로 나라를 빼앗기고 흘러가는 시간마다 배를 끌어간 악소국이었다.

국제회의장에서 배를 가르며 조선의 특별을 호소도 해보았고 조선침략의 원흉을 차단하고 그앞에서 『조선 만세!』도 훠쳐보았지만 갈등은 통정조사 차례지지 않았다.

2천만동포가 모두 평화나 담배를

끊고 식사를 즐기고 가파리와 비녀,

흔수까지 빼았으며 복장자, 나풀자

장자, 신신향자까지도 절에 절을

분분을 아낌없이 내놓으며 눈물겨운

국제보상운동까지 벌리었지만 그들

이 그토록 바랐던 조선의 독립은 실

현되지 못했다. 살가집 개암도 끝나

나라원은 민족의 삶과 한이 구현

사무쳤던 그 시기 우리 인민 누구

가 철학적 헌원을 자주독립국가

가였다. 아! 조선이, 채 너는 날과

같이 크기를 놓지 않았느냐. 나에게

죽어나갈지도 모르겠다고 예상되었던

자주독립국가가 건설의 창

다운 퀄리티를 강조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을 선포한 첫

날로부터 수십년에 걸친은 장구한 기

간 자주로 혼연일체로 자주로 강대

해진 자주의 강국이다.

자기 발걸의 첫걸음을 땅 때로부터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화국

의 앞길에는 온갖 적대 세력들의 악

랄한 도전과 대시의 시련에 중증합

가로막아나섰다.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희유하고 입면

을 가져왔으며 제국주의자들은 표를

이자국 관리에게 있어 없기 때문에 이

번아 후진 풍자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을 보복해나섰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창건 68돐에

즈 응하여 인민 대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회에서 2월 토

론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

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일심단결로 승리』의 주연

과 조선인민『상국』이 상영되었다.

인민이 김일성-김정일주의연

구회 위원장 애쓰, 푸른바른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창건 68돐이 되는 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이다.

공화국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

세우고 무상치료제와 무료교

육제 등 인민적 사례들을 실시하고 있다.

체험을 통하여 공화국이 암말로

장단구에 있는 나라이라는 것을

증명한 조선인민은 인민정권

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들고 있다.

인민의 어떠한 절대적인 지지

와 신뢰가 있어 사회주의 조선은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될 때에도 끄떡

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의 학제적의 반사회

주의 공세가 점증되고 끝이 없는

경계에 끝이 끊어졌다.

이번 상황을 빙고 『강력히 대응』하겠다

느니, 『경고』한다느니 뛰어 하며

큰수없이 놀라워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과 피의역적체제

의 날로로 풀려나온 것이다.

미국과 피의역적체제의

경계에 끝이 끊어졌다.

미국과 피의역적체제는

미국과 피의역적체제는